'불교근세 백년'

강석주·박경훈 공저

"일제 불교침탈 대응 졸렬했다"

사찰령·본말사제 수용 신랄 비판

근세한국불교 100년 교단사적 정리

法類兄弟의게頤祝홈

慈山에埋玉을和氏가光彩케ᄒᆞ얏스며孤竹에居馬를伯樂이超躍케ᄒᆞ야서於世界卜에第一至寶識物이되ᄂᆞᆫ줄노於千萬歲에州奚談을遺傳ᄒᆞ얏거든況玉理至道가世界을公益ᄒᆞ며人民을普利ᄒᆞᆫ者ㅣ昆而未伸ᄒᆞ며壓而未揚ᄒᆞ理가有ᄒᆞ리오大抵佛敎에大願願은普欲令衆生으로同得此道케ᄒᆞ려ᄒᆞ야於無窮世界에其無窮ᄒᆞᆫ人民으로ᄒᆞ야금無窮ᄒᆞᆫ福樂을受케ᄒᆞ시라고其無窮ᄒᆞᆫ身을現出ᄒᆞ야玉候將相과大富長者와士農工賈와乃至外道邪人과出家沙門에種種形色으로其國土人民을示敎利喜ᄒᆞ시느니大哉라 天皇陛下之聖德이시여蓋敬라總管閣下之明敎이시여當今國土를維新ᄒᆞ시며敎治를維新ᄒᆞ시며民藥을維新ᄒᆞ시며道德을維新ᄒᆞ시ᄂᆞᆫ中에我 大雄氏의世界를公益케ᄒᆞ시며人民을普利케ᄒᆞ시ᄂᆞᆫ至道主理가昆壓而未伸超幾百年호宗敎ᄒᆞ一脈一命으로ᄒᆞ야금我僧侶의精神을喚起ᄒᆞ야世界를公益케ᄒᆞ시며人民을普利케ᄒᆞ시니唯寧諸山法類兄弟ᄂᆞᆫ此勅令下에其昏昧호精神을拜復ᄒᆞ며此維新中에且關敗호思想을變改ᄒᆞ야各其一塵篇에處ᄒᆞ야實王刹을現ᄒᆞ며微塵國에坐ᄒᆞ야大法輪을轉ᄒᆞ며現今內外國土에大莊嚴이될것이며遠近世界에大公益을發揮ᄒᆞ리며寃親人民에大普利를與布ᄒᆞ야 天皇陛下와總管閣下의大希望ᄒᆞ시ᄂᆞᆫ聖德明敎를孤負치안이ᄒᆞᆯ것이오坯ᄒᆞ吾 佛廟의遺囑ᄒᆞ옴신지ㅡ一我諸弟子ㅣ轉轉行之則如來法身이常住而不滅ㅡ이라ᄒᆞ신明訓을遵奉ᄒᆞᆫ佛弟子의義務가堂堂ᄒᆞ리니惟我法類兄弟ᄂᆞᆫ個個히祖氏伯樂을達ᄒᆞ야孤竹에戀馬를脫ᄒᆞ고慈山에埋玉ᄒᆞᆫ光彩ᄒᆞ기를一齊로祝頌ᄒᆞ노라 世界上에大超躍大光彩ᄒᆞ기를一齊로祝頌

巡邦鎭陛 崔就燮

◇일본 승려 사노에게 승려도성출입해금에 대한 상순 스님이 <조선불교월보>에 기고한 글.

"좋은 이념을 가졌으면서도 방법이 졸렬했다. 칭찬 받아야 할 일보다 지탄받아야할 일이 더 많았던 과거를 가지고 있다."

〈불교근세백년〉(민족사)을 내놓은 석주(침보사 조실) 스님과 박경훈(조계종 역경위원)씨는 한국 근세 불교 100년을 이렇게 평가했다. 책은 1895년 승려도성출입금지 해제부터 일제의 종교탄압, 8·15 해방 그리고 1990년 이후 정화에 이르는 한국불교 100년의 흐름을 교단사적 입장에서 정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야기의 핵심은 불교사 조명에 있지 않다. 그 속에 감춰진 한국불교에 대한 일본의 속박과 그것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한국불교계의 우매함을 파헤친다. 특히 지은이는 일제통치하에서 승단문제를 승단 외의 힘 즉, 세간법에 의해 해결하려는 당시 한국불교의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지은이는 말한다. 1600년의 한국불교사에 불교가 국가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 적은 없었다. 심지어 조선조 5백 년의 불교정책 속에서도 교단은 자율적 규제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으며 항상 계율을 중요시했고 계율을 어긴 자는 창피한 줄 알았다. 하지만 일제의 사찰령 이후 불교 교단은 세간법에 의지하는 습성이 생기기 시작했다. 세간을 뛰쳐나와 불법을 닦고 깨달아 세간을 제도하겠다고 하는 승려들이 도리어 세간법에 의해서 자기를 쳐결하는 웃지 못 할 일이 지금도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은이는 먼저 승려도성출입해금과 관련 한국불교의 졸렬함을 지적한다. 당시의 스님들이 종교침략의 술책인 줄도 모르고 승려도성출입해금을 반겼을 뿐만 아니라 승려도성출입해금을 건의한 일본승려 사노에게 감사장까지 주었다는 것이다. 이런 일은 몇몇 스님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앞다퉈 사노에게 감사하였다는 것이다. 심지어 도성 출입을 풀어준 황은에 보답한다며 한일승려합동무차대법회까지 열었다. 지은이는 이것이 바로 한국불교계 안에 친일의 뿌리가 내리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개탄한다.

이밖에도 지은이는 사찰령, 본말사제도 등 근세불교 100년에 일어났던 일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종교침략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 불교는 어떠했는지를 신랄하게 꼬집는다. 한국불교를 개혁하려는 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항일투쟁사, 불교정화운동 등에 대한 평가도 빠뜨리지 않고 있다.

눈 밝은 독자가 아니더라도 승단 내의 문제를 타력에 의지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끝 부분에는 실려 있는 '근대불교사의 성격과 전개' '일제하의 친일불교' '근대불교의 승직제도' 등 3편의 논문은 근세불교를 이해의 길라잡이로 삼을 만하다. 값 8천5백원.

출판 담당=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한국 선불교 가이드 북 영문판 Empty House 출간

호주 멜버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 베레베쉬 씨가 영문판 한국 선불교 가이드북 〈Empty House〉를 내놓는다.

그는 어린시절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왜 태어나고 죽어야만 하는가' 등 인간 근원에 대한 물음에 의문을 가졌다. 대학에 진학해서도 그는 이같은 의심을 풀기위해 철학과 법학을 동시에 전공, 동·서양의 철서를 탐독했고 불교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게 되었다고 한다.

"중국 선사들의 어록을 읽자마자 무엇을 이야기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었어요. 내가 가진 의문을 바로 질러 가르침을 주는 듯했기 때문이죠. 이후 인도·티베트·중국·일본 등 불교가 융성했던 나라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정부가 후원하는 외국인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경희대 대학원 법학과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하며 한국과 처음 인연을 맺은 크리스 씨는, 한국 선불교를 소개하는 책(영문)이 없어 아쉬웠다. 특히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사찰을 찾지만 정작 사찰에 대해 정확하고 세밀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둘러만 보고 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고 한다. 그런 안타까움이 한국사찰 순례로 이어졌다.

그가 찾은 곳은 주로 선승들의 치열함이 녹아있는 수행공간이다. 5년의 한국 유학생활 가운데 절반 이상을 사찰을 찾아다닌 셈이다.

"한국어나 한문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영문으로 된 책자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경주 불국사를 시작으로 전국 85개의 선찰들을 일일이 답사했습니다. 송담·진제·서옹·숭산·법전 스님 등 선승들의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Empty House(빈집)'는 한국 선불교의 원류를 찾아 떠났던 구도여행을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호주에 불교가 전래된 지 200년이 넘었고 불교를 공부하는 그룹도 많다고 말하는 크리스 씨는 "서양인들에게 불교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것이며 연기·업 등 부처님의 가르침이 최상의 진리임을 알고 있다"며 "특히 인종차별, 지역주의 등과 같은 국제문제에 대한 해답도 불교에 있다"고 강조한다.

크리스 씨는 앞으로 한국 선불교에 관련된 출판에 전념할 계획이며 'Empty House'는 올 3월 영문출판 회사인 eastward사에서 출간하며 우리말 책도 출간할 예정이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책과 삶

변호사·호주인

크리스 베레베쉬 씨

85개 주요사찰 답사 업·연기법 최상진리

반야심경 오디오북 출간

인도의 영적 스승 오쇼의 〈반야심경〉(황금꽃)이 오디오 북으로 출간됐다.

상·하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6개의 테잎(90분)이 있다. 이 '반야심경 오디오북'은 〈반야심경〉에 대한 인도의 깨달은 스승 오쇼의 영어 강의를 한국어로 더빙한 것으로 모두 16시간에 달한다.

우리말과 영어로도 동시에 들을 수 있고, 강의 내용이 담긴 해설서까지 첨부되어 있어 책으로도 〈반야심경〉을 읽을 수 있다. 값 각 3만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왕 초보 불교박사 되다	일지외	민족사
2	성철스님 시봉이야기	원택	김영사
3	달라이 라마 행복론	류시화	김영사
4	생활수행이야기	원황	불광
5	영가천도	김현준	효림
6	영가천도와 49재	박연진	민족사
7	내가 본 부처	도법	호미
8	파아나두라 대논쟁	오진	운주사
9	이른 아침 잠깐 앉은…	박영재	운주사
10	티베트 명상법	이현주	두레

도서 안내:(02)737-0695

세계 4대 성불 중 한 분으로 추앙받는 승산 선사 공안집

온 세상은 한 송이 꽃

무심 편집 | 값12,000원

현암사 전화 : 365-5051~6, 팩스 : 313-2729

원효사상 관련 논문 13편

'원 효'

고영섭 저

〈원효〉(예문서원)는 지금까지 발표된 원효 스님 관련 논문 700여 편 가운데 스님의 일심(一心), 화회(和會), 무애(無碍) 등의 사상과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13편의 논문을 모았다.

편자 고영섭(동국대 강사) 씨는 "철학적으로 접근하거나 뚜렷한 논지를 지닌 논문을 중심으로 분야를 골고루 안배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논문이 발표된 시대도 1962년부터 2000년까지 폭넓다.

조명기(전 동국대 교수) 씨의 '불교의 총화성과 원효의 근본 사상'은 한국 불교의 총화성 이론과 총화성의 교리를 언급한 뒤 원효의 저서에 나타난 공통사상, 교판론, 종지, 한국 불교의 준거, 중흥조와 가치관, 통섭 모책, 행적 실천 등을 밝히고 있다. 이종익(전 동국대 교수) 씨의 '원효의 십문화쟁론'은 원효 스님의 일관된 사상을 화쟁으로 파악하면서 흩어져 있던 해인사 장경각의 단간본 〈십문화쟁론〉을 복원하여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조명기 씨의 '원효종사의 십문화쟁론 연구'와 최범술 씨의 '십문화쟁론 복원을 위한 수집 자료'와 대비된다.

또한 박태원(울산대학 교수) 씨의 '대승기신론 사상을 평가하는 원효의 관점'은 원효 사상의 중관과 유식을 지양한 사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식 사상의 기반 위에 있음을 밝히고 있고, 고영섭 씨의 '원효의 화엄학'은 포괄적 불교사상가인 원효에게 화엄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탐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 논집에는 고익진(전 동국대학 교수) 씨의 '기신론 소·별기를 통해 본 진속원융무애관과 그 성립 이론' 등이 실려 있다. 값 2만3천원.

삶의 성찰 담은 우화 9편

'성자마을…'

김정빈 지음

소설 〈단〉으로 널리 알려진 김정빈 씨가 내놓은 〈성자마을 이야기〉(책이 있는마을)는 종교적 삶의 성찰을 담은 9편의 우화가 실려 있다. 이 이야기들은 한결같이 존재의 근원과 삶의 의미 그리고 삶의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그 중 '헤아린 자와 사랑한 자'는 서로 이웃한 수행승과 매춘부에 대한 이야기다. 엄격한 수행승은 타락한 매춘부를 불러 사정없이 질책한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깊게 참회한 매춘부는 그런 생활을 멈출 수는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충만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매춘부의 내면생활을 모르는 수행승은 그녀의 죄상을 낱낱이 계속 기록하며 벼른다.

그런 어느 날 수행승과 매춘부는 함께 죽어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 천사는 매춘부는 천국으로 수도승은 지옥으로 가라는 준엄한 심판을 내린다. 그 이유는 매춘부는 비록 매춘을 하였으나 그것은 진리를 베푼 것이었고, 수행승을 수도를 하였으나 그것은 정신적은 매춘을 하였다는 것이다.

또 '항구 도시의 전설'은 화려함과 추함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한 항구 도시에 나타난 성자 이야기다. 외관상 드러나 있는 도시의 아름다움과 화려함 뒤로 감춰진 더러움과 추함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 뒤로 감춰진 슬픔과 고통과 비애, 절망도 모두 인간사를 구성하는 동전의 한 면임을 그 성자는 보여준다. 즉 중요한 것은 허례허식에 있지 않고 진실한 마음에 있는 것이란 것이다.

이 이야기들은 나는 누구인가, 참된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삶의 소중한 가치란 무엇인가 등에 대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성찰하게 해 준다. 값 8천5백원.

기도·49재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불교의 3대 신앙 체험서

긴간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이 극락세계의 문을 엽니다.

미타신앙·미타기도법

불교 신앙사에 있어 단연 제일의 위치를 차지하였던 미타신앙! '나무아미타불'의 염불은 내생뿐만이 아니라 현세까지도 극락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미타불의 참모습에서부터 극락의 여러 가지 측면, 칭명염불·오회염불·관상염불·천도염불 등의 각종 염불수행법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구성〉

Ⅰ 극락을 여는 미타신앙 Ⅱ 아미타불의 본원
Ⅲ 염불의 공덕 Ⅳ 칭명염불 수행법
Ⅴ 관상염불 수행법 Ⅵ 천도와 미타신앙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올바른 관음기도를 위한 길잡이

관음신앙·관음기도법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 행복을 안겨 주는 관세음보살. 이 책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관세음보살의 근본 원력과 구원능력,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이 상세히 실려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가져다 주는 법! 부디 이 책을 참고로 관음의 자비 속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지장보살은 어떠한 분인가? 행복을 보장하는 지장기도 방법은?

지장신앙·지장기도법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 기도법,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참회·참회기도법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틔워 보십시오. 가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구성〉

Ⅰ 업장과 참회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Ⅲ 절을 통한 참회 Ⅳ 참회염불
Ⅴ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Ⅵ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영가천도는 어떻게 하나요?"

우룡 큰스님의

영가천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 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생활 속의 기도법

일상 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기도 방법에서부터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4×6판 / 값 3,500원

기 도

총 6장 52편의 다양한 기도성취 영험담으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수 있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02) 587-6612 · 팩스 (02) 586-9078